

2016년 7월 14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4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7. 13. (수)	담당부서	무역기술장벽협상과
담당과장	윤종구 과장(043-870-5540)	담당자	허은정 주무관(043-870-5545)

한국,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
- 제1차 한-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산업통상부(MOIT) 및 기술표준원(STAMEQ)과 함께 제1차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를 7. 14.(목)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었다.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가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.
 - * 무역기술장벽(TBT 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표준, 기술규제 및 시험인증(적합성평가절차)와 관련된 무역장벽
-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(15. 12월)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국간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,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·인증 분야 상호인정, 기술규제 정보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.
 - 이에 우리 측은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의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하였고,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·인증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.
- 양국은 '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(FTA)가 발효된 이후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 간에 체결한 전자제품 시험·인증 분야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

- 1 -



-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인증센터(QUACERT)는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베트남에 전자제품 수출시 안전과 전자과적합성 분야의 베트남 품질인증(CR 마크) 획득에 시간과 비용의 단축이 가능해졌다.
-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양측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.
 - 우리측은 베트남의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과, '17년 4월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휴대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 또한, 사전 품질인증이 지연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에 대하여 조속히 공장실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'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5~6%의 성장을 지속해온 '넥스트차이나'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'라고 말했다.

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윤종구 과장(☎043-870-5540), 허은정 주무관(☎043-870-55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한-베트남 시험인증 주요 TBT 현안**

- 에너지 효율 인증 : 해외 제조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등록하도록 하고,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요구
 - (대응) 차별적이고 과도한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

- 철강 인증 : 국내 모기업은 '14.6월 베트남에서 시행된 철강제품 사전 품질인증을 받기위해 '14.4월 공장심사를 신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실사를 나오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* '15년 기준 수출량 : 82,728(백만원)
 - (대응) 인증절차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

- 신규 배터리 인증 : '17.4월 시행예정이나 현재 가능한 시험소 목록, 인증절차, 인증서류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예상
 - (대응) 지침서 발행시 FTA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 요청